

1000만 관광객 시대 여수, 해양관광 허브 도약

전년도보다 48% 증가... 인기 관광지 오동도·엑스포공원 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의 꿈을 이뤄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목표치인 1000만명을 돌파한 10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지난해와 비교해 48.4%, 지난 2011년보다는 51.6% 증가한 것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68만명, 2·4

분기 328만명, 3·4분기 345만명이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8월에는 무려 157만명, 지난 5월에는 144만명이 여수를 찾았다.

인기 관광지로는 오동도가 241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엑스포해양공원으로 172만명, 3위 아쿠아플라넷으로 83만명, 4위 항일암 72만명에 이어 해양수산과학관, 흥국사, 디오션워터파크, 금오도, 진남관, 해양레일바이크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통계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제47조의 입장

객 통계 지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지역 43개 관광지점의 공식 집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처럼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무엇보다 세계박람회 이후 높아진 인지도와 도로·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 시티투어와 유람선 투어, 거

북선 야경투어, 해양레일바이크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첨병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세계박람회로 다져진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여수에 호감을 느끼고 재차 방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김충석 여수시장은 이날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Oh! yeosu 관광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30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천만명 관광시대를 열어가자”고 강

조했다.

김 시장은 “잘 갖춰진 사회간접자본시설, 천혜의 자연경관과 탁월한 기후조건, 유서 깊은 역사·문화·관광 자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여수로 돌리기에 충분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뤄낸 오늘의 쾌거를 발판삼아 여수가 세계 4대 미항으로 우뚝 서 ‘365일 치유(힐링) 관광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전 폐석산(위)과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이후 모습.

고흥 거금도 폐석산, 태양광발전소 탈바꿈

거금솔라, 680억 들어 준공... 하루 최대 15만kW 발전

고흥의 한 폐석산 부지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로 탈바꿈했다.

전남도는 10일 고흥군 금산면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병종 고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거금도에너지테마파크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는다.

거금도에너지테마파크는 사업 시행사인 거금솔라(주)에서 민자 680억원을 들여 거금도 폐석산에 국내 최대 규모인 25Mw 태양광발전소와 부대시설을 건설했으며 시공은 전력시설 전문회사인 한전KPS(주)에서 맡았다.

축구장 80개 크기와 맞먹는 55만

8810㎡의 넓은 부지에 발전소 5기가 들어섰으며 태양광을 집광해 전력을 생산하는 모듈 10만 4979장(1650cm×997cm)이 설치됐으며 주변 경관 조성 및 재해 예방 관련 공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최대 15만kW(일조량 6시간 기준)를 발전해 한달에 45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고흥군 전체 3만4600가구 중 37%인 1만2800가구(가구당 월 평균 350kW 소비 기준)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고흥군은 사업 부지 내에서 공사로 채취한 부존자원과 사업 임대료 등으로 군 세외수입이 발생해 재정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년 후에는 시설이 기부체납돼 연간 100억원의 군 세입과 에너지 자립률 10%를 달성할 전망이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전남은 연 평균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태양광발전단지의 최적지로 현재 전국 태양광발전 허가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적의 자연 여건을 바탕으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은퇴자마을에 공동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에너지복지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bung@kwangju.co.kr

기자 노트

GIST연구소 설립 정치적 이용 안돼

광양시가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연구소 설립을 추진한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소수 여론에 밀려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역 미래와 연관된 광양연구소 설립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목소리도 있다.

GIST 연구소는 에너지·환경·신소재 등 글로벌 전문 과학기술을 양성해 지역 내 산업과 공동 R&D 체제를 구축하고 지식과 산업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 같은 기대를 갖고 시는 지난해 10월 미래과학창조부 예산으로 GIST 광양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본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장과 시의원 9명은 지난 10월말 GIST를 방문해 연구소 유치 배경 설명을 듣고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시설을 견학한 뒤 호의적 반응을 보이며 설립에 가속도가 붙는 듯 했다.

하지만 11월 초 광양시의회 총무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의원이 연구소가 들어설 커뮤니티센터가 시민 이용시설인 만큼 시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안건을 보류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뮤니티센터 내 수용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이 연구소 유치를 반대하자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주변 일부 의원이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그 원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실 이 커뮤니티센터는 이용자가 매년 급감하면서 운영관리비 부담이 쌓여 시가 대책을 고민중이었다.

해당 시의원이 광양발전이 아니라 지역구 일부 주민에게 휘둘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GIST 광양연구소는 350억원을 투자하는 광양의 숙원사업으로 동서통합시대 지식 풀

강화와 산업 재활성화를 통해 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GIST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중심 대학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등 이공계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세계 대학평가에서 잇따라 상위권으로 평가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광양 전민의 이익보다는 지역, 그것도 일부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받지 않았으면 한다.

/py4079@



박영진
광양주재기자

‘보듬이나눔이’ 보성어린이집 개원

보성군은 9일 “지난 6일 정중해 군수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네 보육지원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 ‘보듬이나눔이 보성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성을 동인길에 위치한 보듬이나눔이 보성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

정중해 군수, 5월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는 모두 14억7000만원으로, 어린이집은 부지 1052㎡에 건축 전체면적 596.37㎡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정원은 99명이다.

정중해 군수는 “출산 후 군민들의 육아활동에 도움을 주고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복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50만송이 애기동백꽃 아름다운 자태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13일 축제

눈꽃 사이로 피어나는 50만 송이 애기동백꽃의 아름다운 자태가 펼쳐진다. 신안군은 오는 13일부터 31일간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신안 애기동백꽃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겸손한 아름다움’이란 꽃말을 가진 ‘애기동백’ 명칭은 잎과 열매가 동백나무보다 작은 데서 비롯됐다. 품종에 따라 흰색, 분홍색, 붉은색 등 다양한 꽃을 피우

며 한꺼번에 피지 않고 몇 송이씩 차례로 피어 매일 새로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4ha에 조성한 5000여 그루에서 피어나는 애기동백꽃길(1.1km) 탐방, 포토존, 200여점의 세계 희귀품종의 동백분재 전시, 문화예술 공연, 소원 리본 달기, 스램프 찍기 및 목공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목포해양대 2014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확정

목포해양대는 9일 “지난 6일 교육부로 부터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4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줄어드는 학령인구수와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사유로 증원을 미뤄 왔었다.

그러나 국내 해운업계의 인력난을 외면하기 어렵고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해사대학 정원 증원 요청과 대학 자체 구조 조정 등의 등이 반영되면서 증원됐다.

해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사대의 경우 교육부 순증 인원 15명에, 대학 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15명을 더해 30명의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해사대학은 2013학년도 390명이었던 신입생을, 2014학년도부터는 약 7.7% 늘어난 420명으로 선발하게 된다. 총 모집인원은 기존 616명에서 631명으로 조정되며 이는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약 2.4% 늘어난 수치이다.

목포해양대 최민선 총장은 “이번 입학정원 증원으로 해양 전문 인력 양성 특성과 대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하게 됐다”며 “유관기관 및 해운업계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고급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만’가지 알찬정보와 ‘물’만난 살림꾼들의 ‘장’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